

마데레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십자가 갈림길에서

신윤식

행복 찾아 길 떠난 사람들
십자가 갈림길에서
길을 잃더라.
동서남북 길 못 찾아
방황하더라.

세상 돌고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더라.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원하는 것 찾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더라.

아! 누가 스스로를
길 잃었다하더냐
행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바로 십자가 그 길
내 본향에 있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9.15

발행호수 제21권 37호

제 자란 어떤 사람에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어의 뜻 그대로 풀
이하자면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
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
천하여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점으로 하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의 불을
일으킨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된 옥한흠 목사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로 유명한 이 분은 제자훈련을 통
하여 신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
라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통하여 참된 제자
됨을 보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삶이 변화한다면
그 변화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품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도
덕과 윤리가 기준으로 세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
다. 즉 도덕과 윤리가 기준 되어서 삶의 변화를 판단하
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던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화를 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
대로 살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점차 화를 참으며 부드
러워지거나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는 것과 같은 것
을 삶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변화 또한 신자에게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
는 것이 어리석음을 알고 절제하며 그냥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말씀 안에서 그러한 변화가 없
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활동
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오전설교
눅 14:25-35

제자의 길

하지만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화를 참아야 삶이 변화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의 모습을 그런 의미
로 판단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미 성품적으로 그
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데 본문의 가르침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아
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사람들인 것 같
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
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
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
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27절)는 말씀을 하십
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혈연을 깨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까
지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
운 관계로 맺어져 있는 부모, 형제, 자식의 관계를 부정
하고 깨뜨리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떠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일
시적으로 부모 형제를 떠나 있는 것이지 미워하며 떠나
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말씀은 쉽게 납득
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지
만 마태는 부모,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부
모, 형제, 자식, 거기에 자기 목숨까지 포함하여 그 모
두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의 표현이 마태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 표현과 의미 그대
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는 우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이비라면 자

신의 교를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식은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서 관계 단절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속마음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를 깨뜨릴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정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상식이 앞서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애당초 우리의 이해와 상식의 범주를 초월하여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니까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성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인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입니다.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진리이며 빛입니다. 때문에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신자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의미를 알기 전에 순종을 말하는 것은 맹목적인 수박에 얹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잔치를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주인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내용과 계속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에 대해 생각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매료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함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늘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

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즉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형제, 자식에 덧붙여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목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부모, 형제, 자식까지 미워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부모, 형제, 자식이라는 존재의 중심에는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부모, 형제, 자식은 나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형제는 같은 뿌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또 다른 나의 존재입니다.

이처럼 내가 중심이 된 관계에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득을 얻음으로 자기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부모, 형제, 자식을 미워하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부정이 없고서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함께 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따른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기사랑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무리를 향해서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 비유를 덧붙여 말씀합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가진 것은 만원인데 백만 원이 소요되는 일을 시작한다면 어리석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함으로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일만 명으로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손자 병법에 나오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처럼 전투에 임하는 임금이라면 팔히 전력을 비교하여 승리가 확신될 때 싸움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신을 돌아볼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마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의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두 비유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자 됨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제자 됨에 뜻을 두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을 자기 유익을 좇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길도 아니고 종교적 만족을 얻기 위한 길도 아닙니다.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더욱 더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를 좇고자 한다면 결국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예수님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제자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관심이 없이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 스스로를 신자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자기의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망대를 쌓고자 하고 전쟁을 하려는 어리석음에 해당될 뿐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재산을 버리라는 뜻일까요? 소유는 단순히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도덕, 윤리도 그에 해당됩니다. 돈을 자기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돈을 목적으로 한 삶의 길로 가게 됩니다. 돈보다 좋은 인품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면 도덕과 윤리 실천에 뜻을 두는 삶의 길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아는 것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유로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결국 멸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마음이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은 오로지 자기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자의 길은 세상의 소유에는 만족이 없음을 알고 생명하신 예수님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주어진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계셔서 나를 보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내 힘이 아닌 주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증거하는 제자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

인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서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은 각기 자녀를 낳으며 그 맥락을 이어갑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구백년이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긴 삶에서 그들은 수많은 일을 하며 다양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자녀들을 낳았으며...

주일오우설교

시 130:1-8

주를 기다리는
마음

(134강 8.18일 설교)

죽었더라' 는 것으로 끝납니다. '죽었더라' 가 그들 인생의 결론이고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인류의 결론이며 오늘 우리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운명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세상의 실상과 그 내막을 알 수 있고 죽음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물학적 시각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치게 되면 죽음의 실체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그것이 곧 죽음의 실체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자연법칙이 아니며 우연한 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피조물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하거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열심을 쏟아 붓고, 가히 세상이 성인으로 일컬을 수 있는 덕을 쌓고 인품을 갖춘다고 해도 죽음이라는 절망의 상태를 먼지만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어둠에 갇힌 존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0편의 저자도 인간을 이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며 130편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에 대해 조금만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이 죽음과 동시에 나오는 상관없게 됨을 생각하며 전도서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한 깊은 곳이 무엇 일까요?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죄의 깊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깊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가득한 자신의 실체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세계로 바라보면서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어둠의 세계에 갇힌 자신에게 희망은 오직 주되신 하나님 한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지 안 짓는지 살피시고 감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애당초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갇힌 존재로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잘못된 행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아담의 후손이라는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죄에 일치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린 늘 죄와 일치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부인할 분 있습니까? '나는 생명과 일치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진심으로 어둠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인간의 이러한 내면세계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실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갇힌 자기의 실존을 파악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 열심이나 도덕과 윤리로도 감추거나 가릴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 자기 의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로지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 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고 말하는 것처럼 주되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알았기에 주 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둠에 갇힌 채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을 알고,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주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을 저자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는 말로 표현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심정으로 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파수를 서고 있는 사람에게 아침은 편한 쉼을 뜻합니다. 것처럼 주로 인한 편한 쉼, 안식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와 인자와 풍성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인자로 말미암은 풍성한 속량, 그리고 그 속량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자유와 안식, 이 같은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 속량임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 갇혀 있는 깊은 어둠에서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 한분뿐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죄의 속량으로 인한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죄의 속량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됨을 뜻합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면 그는 죄의 삯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때문에 죄의 속량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며, 이 은총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은총의 세계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주가 오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땅의 것은 그 무엇도 구원의 힘이 아님을 알기에 주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자신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기 한계를 실감하게 되면서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속량하시는 주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는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의 존재를 각자 개별적인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는 신은 인간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반영하며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장이라는 것을 깨닫지

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의 입장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의 입장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존재를 지으시고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묻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입장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불만만 가득해집니다. 자신의 뜻대로 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먼저 인간은 심판 외에 달리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생존하게 하심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입장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여호와께서 이 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 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2-3절) 고 말합니다.

사령관의 말을 생각해 보면 마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유다에 임한 재난의 이유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고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잠시 감동하게 하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가

수요일설교
렘 40:1-6

하나님의
입장에서

(91장 9.11일 설교)

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셔서 발람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민 22:27-33) 이방인의 입을 열어 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굳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기 보다는 유다의 포로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령관의 말은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입을 열게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령관은 지금 신에 대한 자기의 상식에 따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도 유다가 하나님이란 신을 믿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유다의 선지자이며 무슨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유다가 망했습니다. 사령관은 그런 유다의 형편을 그들의 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신에 대한 세상의 상식은 신에게 죄를 범하면 신의 진노를 사서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의 눈으로 유다를 본다면 유다는 그들의 신에게 죄를 범하여 재앙을 받은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그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이러한 시각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의해 패망한 유다의 현실만 생각합니다.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된 것이 너희의 신에게 죄를 범한 결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바벨론의 강함과 유다를 정복한 것을 자기들의 신을 잘 섬겼기 때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잘되고 못되는 근거를 신에 대한 인간의 행함에 두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현대 교회도 이러한 상식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입장에서 불만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불평으로만 반응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유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에 대한 땅의 상식에 붙들려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 주면서 바벨론으로 가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든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하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망한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유익입니다. 예레미야를 선대하겠다고 하는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고자 합니다. 사령관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이 유다를 다스리도록 세운 그다라에게 돌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거나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관대하게 대하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분노를 사고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된 예레미야에게 사령관은 왜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보다 사령관이 더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원인은 각기 다른 입장 차이에 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유다에게 재앙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반역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느부사라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말은 오히려 호의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바벨론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저주한 것이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도 느부사라단도 자기 입장에서 예레미야의 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말씀하신 것은 유다로 하여금 자기 죄를 보게 하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다도 느부사라단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가 없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는 상관없고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똑같이 자기 입장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취할 입장은 저주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 은총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1장
교 독 : 11(시17편)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220장
성 경 : 눅 14:25-35
말 씀 : 제자의 길(7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1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88장
기 도 : 이경숙 집사
찬 송 : 421장
성 경 : 시 134:1-3
말 씀 : 여호와를 송축하라(13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621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92강)

■ 교회소식 ■

1. 재건교회 95회 총회가 23일(월)오후 7시에 광주재건교회당에서 열립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서창남 집사

이단 ④

몰몬교의 핵심 핵심교리로 자리하고 있는 것 중의 또 하나는 일부다처제다. 일부다처제는 가장 높은 왕국인 해의 왕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교리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일부다처제를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부다처제를 하는 몰몬교 지도자를 잡아들이고 교회 재산을 압류하자 이에 굴복해 1889년 일부다처제를 포기하겠다는 성명서를 내놓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교회가 배도했다는 증거로 보고 몰몬교를 나와 계속해서 일부다처제를 행하는 그룹이 발생하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FLDS라고 알려진 근본주의 몰몬교도이다. 이들은 지금도 일부다처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또 다른 일부다처 교파가 있는데 이들은 센테니얼 파크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일부다처를 행하는 그룹과 달리 현재의 몰몬교는 일부다처제를 일절 행하지 않으며 교인 중 일부다처제를 행하다 발각이 되면 파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부다처를 행하는 그룹을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부인한다. 일부다처제에 대한 몰몬교의 해명은 과거 한 때 기근과 전쟁 같은 여건에서 과부들을 보살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실행한 것이지만 1890년 일부다처제를 하지 말라는 계시를 받아 그 후로는 일절 일부다처제를 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몰몬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일부다처제가 몰몬교의 교리였음을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비록 지금의 몰몬교가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지 교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몰몬교는 가정을 교회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믿고 있다. 즉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결혼을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는 의식으로 여긴다. 그래서 결혼은 성전에서 행해야 한다고 하고 신적 권능을 통해서 집행되는 영원한 의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유효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전에서 인봉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부모와 함께 영원히 인봉되어 영원한 가족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 22:30)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모임을 위해 건축한 건물을 주님의 집인 성전이라고 하면서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여긴다. 이처럼 거룩한 성전에는 순결한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회원들은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각 지역의 감독으로부터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를 판단 받은 후 ‘성전 추천서’라는 증명서를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결혼 의식을 행하게 된다면 몰몬교인이 아닌 부모나 가족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성전에서의 결혼을 영원한 결혼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의 결혼은 영원하지 않은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 즉 사망과 함께 끝나는 시간적 결혼으로 여긴다. 따라서 충분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전에서의 예식이야 하고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즉 독신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등, 이들의 교리는 하나같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